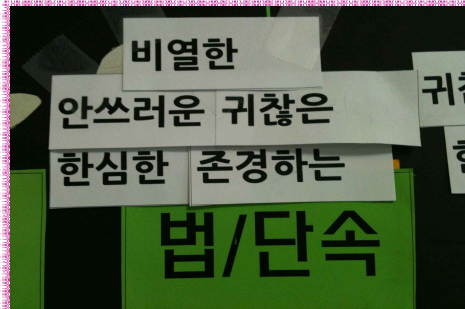


편5. 사다리 뉴스 - 법 / 단속

경찰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따로 넣었어요.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 제가 켈 처음에 여성단체를 알았던 것도 업소에서 저를, 업주가 사기혐의로 350만원에 고소를 한거예요. 기소를 내렸죠. 어떡하면 좋겠나 나는 할 줄 모르니까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여성단체에 구조요청을 해서 검찰 조사를 상담소 소장님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딱 앉자마자, 검사가 아주 저를 쳐다보기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딱 쳐다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알죠? 요새 탕치기? 알죠 그거?" 그러면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야. 내가 뭘데요 하고 물어볼라다가 진짜. 막 검찰이라는 자체를 처음 와보고, 쫓고 있고 마음은 막 미치겠고, 이게 왜 이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왔지만 대답은 해야겠는데 대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 '탕치기라고 알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 진술서를 읽었죠. 죽 읽더니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고 생각할 겨를이 있었다 아니가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이런 이러한 일을 했었고, 이게 분명 선불금이 맞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법에서 나를 좀 구원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갔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내가 돈 떼먹고 어디 사기를 진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중죄인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너무 말이 좀 그렇다 싶었는데, 상담소 소장님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검사님한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언니들이 다시 재, 업소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님 아량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 좀 부드러워 지대요. 그러면서 제가 뭐 일하면서 코 다쳤던 이야기, 업소 일하면서 다쳤던 이야기, 제가 보호받지 못 한 일들을 진술서에 썼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뒷장을 넘기면서 보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니가 어떻게 할꺼냐 라고 대반에 묻더라고요. 사건이 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되는건 맞다고. 내가 잘못 됐으니까 하는건 맞는데 저는 방법도 모르고, 정말 악덕같은 업주 때문에 제가 이런

게 됐는데 선처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딱 내려진거는 이제까지의 일은 필요없고 당사자랑 내하고 둘이서 합의보고 끝내라는 식으로 해결이 되고, 나는 불기소 그거 된 거예요, 기소유예가 딱 떨어져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 가가지고 업주한테 돈을 350만원인데 우리집에 왔다갔다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까지 해갖고 380만원을 갚았어요 빚을. 다른 일을 하면서, 업소 일을 안 하고 오만원이면 오만원 십만원이면 십만원 이런식으로 다 갚았어요. 제가 느낀게 뭐냐면 이 업소에 일했다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법원에서 호소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엄격한, 법의 문이 너무 두껍고 우리는, 말로는 맨날 너거는 보호받아야 되고 어찌고 저찌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그것도 많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는 저희같이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 쉼터나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자활이니 이런 게 많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보면은 모순이랑게 있을수 있죠. 법이 법대로 다 지켜지는건 아닌데, 저희들이 느끼는게 뭐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기간이 3년, 아니면 1년 몇 개월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저 또한 이 쉼터에서 오래 있을 순 없어요. 또 그룹홈이란데서 넘어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거의 3년 정도면은 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을 스톱을 하고 사회로 나와야 돼요. 너무 짧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떠한 잠재력을 보일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소송이 걸릴 지도 모르는데 너무 한정된 금액을 딱딱딱 정해놨거든요, 개인개인마다. 쓸수 있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한테는 공부가 더 중요한 것이 있을수 있잖아요. 내 본성에서. 그러면은 좀 지원을 해줘야되고. 아니면 이 사람은 직업으로써. 지원 이런 방법이 다양해져야 되는데 그게 절대 안되고 딱딱 정해진 틀에서 (선택사항이 좁다라는 거죠) 우리가 맞춰나가야 되는, 폭도 좁은 데다가 돈에 한정돼서 가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할게 다양하지도 못하고, 애들이 또, 내가 또 이래 말하면 그렇지만, 네일아트, 메이크업 이런걸 신경을 많이 쓰고 그걸 굉장히 많이 할라그래요. 그라다보니까는 그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거 다 까먹어 버리고 나면은 사회 나가서 할라고 그러면은 못해요. 자기 샅이라도 하나 차릴 정도의 실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배워서 인제 나왔는데 (경력을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깐 맨날 악순환이 되는거야. 안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부한테 항상, 이

사람의 한정된거만 이야기하지 말고 대폭적인거를 생각을 해서, 기간을 두지 말고, 3년 너무 짧다, 좀 더 연장을 시켜줘가지고 이 사람이 충분히 사회 나가서 활동할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줬으면, 그런 걸 터졌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탈성매매를 해노니까 생각 나는게 지금 지지라든지 한터 이런 입장도 제가 보는 와중인데 그 여성들도 노동의 권리를 찾고 자기가 노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인정 받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그런게 너무 대두되지가 않아요. 자기들은 4대강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다시피, 아예 그냥 놔둬요. 너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삭감만 돼요, 우리 예산이. 그래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법도 또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법을 따라가야지, 이걸 더 축소, 이제는 더 이상 축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문제로 올려서 다같이 생각을 하고, 다같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법이 제정이 돼야지, 이 지금 제정된, 시행되는 법에서도 벌써부터 이런 심각한 모순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높낮이를 따져야 되는, 이런 법은 진짜 아니라고 봐요.

- 탈성매매 이렇게 선언했으면은 말씀하신대로 지원 제대로 해야지 되게 쥐꼬리만 한 40만원(아니예요 그거 없어요)¹⁾ (일동 웃음) 그렇게 밝힌 것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어찌라는 거예요. 어찌라는. 그리고 왜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건지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법 안에 보호를 한다 이런 명목으로, 처벌하면서 보호한다는 건 에스엠을 하고 싶은 건지. 때리면서 사랑하는 그런 건가? 어이가 없는 거 같아요.

- 제가 최근 네이버에서 본 뉴스 보니까 7월 달부터 여태까지 단속한게 8,000명이 걸렸대요. 업주, 아가씨 다. 작년보다 더 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과연, 그거 갖고 말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안하고, 왜 자꾸 늘어나냐, 우리 열심히 이렇게 단속 하는데 왜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다-라는 경찰 측에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우리를 좀 안 좋게 매도하는

1)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 2004년~2009년까지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 성매매집결지내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집결지자활지원센터'에서는 성매매현장에서 탈성매매를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다.

거잖아 자체도. 니네들이, 쉽게 돈을 벌라고 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거 왜 그럴까? 그만큼 남자들이 찾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체 여성의, 애기 때부터 할머니까지 다 쳐서 6%정도가 이거 일을 한 대요. 근데 할머니들이나 애기들은 못 하잖아요. 20대에서 50대를 보는 거잖아요. 6%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길바닥 가다가 한 다섯명, 여섯명 중에 한명은 진짜 일을 할꺼예요. 어마어마한 숫잔데 왜 그걸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만 나쁘게 볼게 아니라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점점 늘어나는데 탈업 여성을 얼마나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 안하고. 지원을 해주려면 정말 그 사람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체계적으로 빨리 탈업해서 맞는 직업을 찾아주면 다신 안 돌아올꺼 아니예요. 근데 기술지원.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네일아트, 메이크업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안 맞는 사람도 많아요. 저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정말. 배우고 싶은게 있으니까. 근데 대학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수능 학원을 제가 끊어서 다닐래니 한달에 거의 60만원 돈이 들었어요. 못 하는 거야. 그럴라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되는데? 학원을 다닐라면?(웃음) 얼마나 모순적이야. 제가 오히려 검정고시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짐이 돼버린거야.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좀더 체계적으로, 개개인에 맞춰서, 너무 제한적인 기간이나 금액이나 이런걸 볼게 아니고, 정말 탈업을, 자기 명분 내세우는 것 밖에 안 돼요. 우리 단체에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노력을 했는데 지네들이 못 따라와준거야-밖에 안 되는 거죠.

- 자활하는 언니들은 어느 정도 의식 있고,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자활을 하거든요. 쉼터에서도 보면 오래면 3개월?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애들이 쪼끔 뭐를 할라고 이렇게 해요. 하는 일이 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텔레비보고 컴퓨터 하고 먹고 자고 그것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하루라도 내가 편하게, 이 지친 마음, 심신을 좀 하루라도 아무 타치 안 받고 내가 좀 편안하게. 누가 진짜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는 그 식탁에서, 밥을 먹고 싶은, 아주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 있잖아요. 쉼터에 딱 들어오면 처음에는 낯설죠. 근데 조금 지나다보면 사람 성격마다 틀리지만, 거의

하는 일이 폭- 자고, 안 깨우니까, 밤낮 뒤바껴도 아무 상관 안 하니까. 자고 일어나서 먹고. 자고. 내 그거를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다가 이제 한, 주위로 눈이 딱 돌아가는 시점이 보름에서 한 달 있으면, 주위 사람은 뭐를 하나 이러면서 봐요. 그러면은 지하고 나이가 맞는 사람도 있을 꺼고, 조금 연령대는 있지만 친구처럼 언니처럼 지낼 만한 사람이 있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뭘하는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도 심리치료, 직업훈련 같은거, 처음부터 강요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쉴 만치 쉬었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면 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학원다니고, 하고 싶다는 거 알아봐주고, 심리치료는 꼭 필요 하고. 그런 거를 해요. 대면심리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커요. 자활센터 언니들도 받고 저도 받고 그러는데 굉장히 빨라요. 심리치료가.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대학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금에서 얼마, 반쯤 날라가 버리면 나머지로 뭐 할라그러면 못한다 말이죠. 그런 모순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자활센터에서는, 다른데는 어떻게 하는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달에 140시간 밖에 일을 못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74만원? 75만원 정도는 벌어가요. 주5일하고 빨간날 다 쉬고, 프로그램 싹 다 하면서. 저한테는 맞아요. 다들 불만은 많죠. 이거 갖고 뭐를 해가 먹고 사느냐. 그럼 저는 그 애길 하죠. 언니 이것보다 못 벌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우리가 벌었지만 이것보다, 그거는 우리 돈이 아니었잖아. 이게 진짜 우리 돈 아니가. 근데 저 또한 이게 모자라다는 거, 지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끝나고 나면 저도 힘들꺼예요. 그걸 감안하면서 살라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 저는 쉼터에 있으면서 언니처럼 수능 준비했었어요. 처음엔. 그게 정확한 목표가 있었고 주변에서 원하기도 했고. 근데 하다보니까 너무 이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보여주기 위한, 그거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해주는데, '너 돈 이제 얼마 남았어. 너 이 돈으로 어느 기간 내에 네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걸 너무 강요를 하고 그러는 게 너무.. 지금은 수능학원을 얼마 다니다 제가 퇴소를 했기 때문에(흐흐) 잘한 건 아니지만, 다른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너무 쓸모없는? 물론 쓸데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

해줬으면.

- 법은, 이렇게 한계돼있는 이 모습을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오늘 좀 그랬었어요. 왜냐면 지지 여성^{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GG)}들이 온다 해가지고(일동 웃음) 이런 모습 안 보여주고 이야기 안하고.(일동 웃음) '강력한 탈성매매를 해야됩니다잉~!!' 이래 얘기할라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다 보여줬으니까 어쩔 수 없고(웃음) 그런 모순적인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썸6. 고민과 소통 - 일에 대해 누구랑 이야기해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현재 자기가 이 일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것들은 누구와 어떻게 풀고 계신지. 이를테면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 이룸이나 여성단체와 무언가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 저는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거의 일기를 써서. 하죠(웃음). 화가 났을 때나 그날그날. 제 건망증이 심하다보니까. 여기 이룸 언니들 통해서 심리상담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같이 욕도 해주고, 내가 막 선생님 앞이니까 욕을 못 하잖아요. 화가 나서 막 얘기하는데 '그 미친놈이?' '그 개새끼가?'(일동 웃음) 풀리는 거야. 너무 잘 맞는 분을 만나서 여태까지 치료를 받고 제가 중간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 선생님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보고싶어요. 언제든지 연락해요' 그런 분 진짜. 그 분 통해서 조금 풀고 있고. 이룸 언니들, 계속 만나요. 별일 아니어도. 친정같애. (그런 마음이 있다는게) 이 언니들 알고 나서 부터 뭐가 좋냐면, 제가 맨날 그 안에서 일을 했잖아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지내다가 이 사회하고의 연결고리 같은, 그런 단체가 이룸 언니들이었어요. 저는 그 안에, 주인을 만나든, 거기서 일하는 애들을 만나든 얘기가 한정돼있어. 밖에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 하지만 여기 언니들하고 얘기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게, 새로운 게 너무 좋은거예요 저한테. 활력소가 된거죠. 그래서 저는 편하게 이룸 언니들?(흐흠) 선생님 두 분. 아니면 정 얘기 못하는 것들은, 일기장에 쓰죠. (이룸 맘에 안 드는 것도 있지 않아

요?) 그걸 어떻게 말을 해~ 일기장에 있어. 일기장에(일동 웃음). (일기장에 욕을 그렇게) 욕쓰는 노트는 따로 있어. 쓰면서 풀리니까. 보여지기 위한게 아니니까. (글쓰는 거 되게 좋은 활동인거 같아요) 근데 내용은 똑같애. 일기를 딱 보면 내용이 고만고만해(웃음) 사는게 다 고만고만. 내일부터 잘 될 거야. 일기 쓰면 좋은게 저를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어요. 처음엔 남 욕을 막 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새끼 미친새끼야 그러다가 내일이면, 희망을 주잖아. 끝에는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아, 내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다음부터 이런 짓을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도움이 돼요. 긍정적인, 제가 우울증도 겪고 막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빙초산도 먹고 자살시도 되게 많이 했어요. 안 그런거 같죠? (그래보여요) (일동 웃음) 울보였어요. 저도 무슨 애길 할 때 '언니 나 슬퍼ㅜㅜ' 이렇게 해야되는 게 그 성격이 못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세갖고, 슬퍼도, 남 얘기하듯이 흘려서 애길 해요. 그게 병이 돼버린거죠. 그 속마음은 일기장에 있고.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동행이란 프로그램이랑 그런거 보면서 많이 용기를 받고. 심리 에세이 책을 많이 일부러 봤어요. 어차피 살꺼라면, 그 전엔 일기장에 살기 싫어, 죽고 싶어. 이렇게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차피 살아 낼꺼라면, 어차피 살꺼라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눈감기 전에, 빙초산을 먹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살려줘..' 이 소리가 나와요. 여기가 타 들어가니까. 근데 안 죽었잖아요. 한달을 물도 못 마시고, 침도 못 삼켰어요. 다 타들어가서. 따가워요. 누워만 있었어요, 수액만 맞고. 동네 소문이 'OO이 죽었다'. 근데 어차피 살꺼라면 눈감기 직전에 후회는 남기지 말자. 편히 죽자. 이게 정말 죽음 앞에 가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긍정적인. 이 세상은 나쁜 사람 없어. 다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런 행동을 할 거야. 손님들. 변태 많잖아요? 미친놈 많잖아요? 처음에는 아씨, 미친 새끼 걸렸네. 이러다가 '아 저 사람 아픈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 일하기가 수월해져요. 생각이 바뀌드라고요. 같이 있는 동안 이를 갈고 그러면 시간도 안 가. 죽여버리고 싶어 막(웃음) 근데 책이랑 많이 접하고, 다른 안 된 사람들 많이 보니까,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왜 나라고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옛날에는 집에서 안 나왔어요. 친구들? 개네가 우리집에 와야지 봤어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얘기 들어보면, 그래 저렇게 나보다 힘들게 이 생활 했지만, 저는 이 생활을

되게 편하게 한거예요. 저는 그렇게 크게, 돈 뜯긴거 빼고는 (일동 잔웃음) 크게 어려움, 맞고 구속당하고 심하게 그렇게는 안했고, 저 이 생활하기 전에는 저희 가정이 제일 불행한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서 이런데서 애들 얘기들어보고 그러니까 난 뭐 나은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내가 가장 힘들어- 거기서 벗어나야 돼. 난 할 수 있어. (와! 감사님!) (일동 술렁술렁)

- 저는 2009년 그 때, 탈성매매할 때 그만 두게 된 계기도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이런 마음 반, 마지막 남은 빛을 어떤 남자가 통, 지가 대신 갚아주는 바람에 같이 살게 된 케이스 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썸을 놓이(웃음) 나한테 교훈을 준거는, 교회를 나가게 했던 거. 지금도 그 점은 좀 고마워해요. 다른 점은 진짜 죽여 버리고 싶지만서도.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직업훈련을 할려고 했었어요. 미싱을 하니까 홈패션 있죠? 커튼 만들고 이불 만들고 하는 거. 그걸 할려고 했었는데 썸터 샘이 제 손을 잡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냉정하게 생각해라. 이것도 기회라면 기회에 네 할 일이 뭔지를, 네가 진짜 하고 싶어 했던 게 뭔지를 생각해봐라.' 이 밤이 새도록 진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줘야겠다.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나한테 길을 열어줬으니까, 정부 그쪽예를 제껴놓고 생각하고, 우리 언니들을 안아줘야 되겠다. 내가 끄집어내줘야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야길 하고 검정고시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 지금도 이 초심이 변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허덕일 여성을 한명이라도 내 손으로 잡아주기를, 안아주기를, 들어주기를.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 친구, 부모 있어도 항상 허하거든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라도 들어주는 상대가 내가 돼보자. 이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변하게 되니까, 지금 정말 사람들에게 당당하니, 트위터에도 당당하니 '나 탈성매매했는데 왜! 나 지금 아니야. 그건 과거일 뿐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 저는 죽기 전에 자서전을 만드는. 제 꿈이 그거예요. 그 책을 읽고 한명이라도 빨리 깨달아서, 빨리 그 곳에서 나온다면 다행인거고.

-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잠깐이었지만, 언니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저는 그냥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다 정도로 느끼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억은 계속 남아 있어서, 이 전의 일들도 떠오르는 거죠. 내가 대놓고 성매매, 성노동 한다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뭐 되게 자포자기식으로 남성들을 만나서 뭘 얻어먹고 같이 자고 이런 거? 이전의 삶들이 딱히 다르지도 않았던 거 같다는 그런 생각? 부모님들이 내가 섹스하는 거 가지고 하여튼 뭐, 낙태한 거 들켰을 때 굉장히 경멸적으로 바라봤을 때? 뭔가 나의 성이 부모님에게 구속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굉장히, 지금 여성으로서 겪는 온갖 절망들? 결국 성의 매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죽을 순 없으니까 바꾸자고 생각하고 바꿀려면은 저들은 너무나 힘이 세고, 힘이 세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많은 걸 알수 있고 그렇다면 저들에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해서 치밀한 논리로 저들을 부수는? 저들의 위선을 쳐부수는 그런거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성학 연계전공도 하고 트위터에서 계속 고민하고 활동하면서

- 혼자 싸울라고 하지 말아요. 공부해서 모르는 그 밑에 여자들한테 우리들한테 알기 쉽게 이해를 시켜주는 게
- 저는 오히려 언니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 아니 공부하는 그런 거를
- 서로 물론 나눠야죠.
- 그쵸, 나눠서 같이 부숴야지, 그걸 바꿔야지 혼자서 못 바꿔요.
-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분들 만나고 싶고, 이룸에서 자리 갖게 된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일동 술렁술렁)
-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강한 자가 영원히 강하진 않거든요? 강할수록 쉽게 무너져요. 그걸 노려야 돼.
- 근데 저들이 누구예요?
- 저들은, 남성이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쥐기 위해서 많은, 다른 약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넣는 사람들. 왜 우리가 힘든데

저들이 우리를 단죄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부수고 싶어요.

- 남성들의 본성, 본질이잖아요. 성에 대한 욕구는 남성들의 본질에 우리 여성들이 희생당하는 일종의 그런. 근데 그게 우리는 직업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즐거움을 주고 나서도 우리는 절대 대우받지 못하는. 50대 넘은 유부남 아저씨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 말에 이런 대답을 해갖고 왕짜림을 당했는데, 항상 하는 말이 바람피는 남자들, 자기 마누라하고 잠자리가 안 맞아서. 우리 마누라는 하는거 싫어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해볼라고 시도 해봤나?' (일동 웃음) '함 맞차줘봤나?' 남자들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성은 자기들이 우월하고, 힘 있고 여자를 정복할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여성들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걸 표출하고 싶고 그런거예요 항상. 그런데 안 맞다하는 이유를 대면서 항상 그런식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술먹고 젊은 여성들을 만나는 거고, 우리가 성매매하는 여성들 이래 하는 그게, 가정에는 풀 수 없는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푼다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들이 우월하다는걸 이야기를 하죠. 희생하는 여성들에 대한 마음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된다는 사회적인 구조다 하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래서 과연 남자들이 정말 저 정도까지 지저분한 본능을 저래 내놓고 저 정도까지 저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그게 백이면 구십 프로는 그래요.